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여 소년단대표들을 축하하시고 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가 6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장인 4.25문화회관은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소년단의 력사와 전통을 이어 우리 소년단원들이 앞날의 강성조선을 떠메고나갈 유능한 혁명인재, 백두산대국의 기동감으로 역세게 자라나도록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끝없이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감사와 흠모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대회에는 전국각지의 소년단조직들에서 추천된 모범적인 소년단대표들과 학생소년지도일군들,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장제도와 무도, 월내도를 비롯한 최전연초소 군인자녀들과 평양시내 학생소년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우리 학생소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장주석단에 나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소년단원이 붉은빅타이를 매어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를 진행하게 된 크나큰 행복에 넘쳐 전체 참가자들은 《만세!》의 환호성을 목청껏 터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끝없는 격정의 환호를 울리는 소년단대표들을 축하하시고 전체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대회시작을 알리는 신호나팔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자 조선소년단기를 든 학생들이 대회장에 입장하였다.

《소년단행진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소년단기가 게양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6월 6일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 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이 터치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소리가 6월의 맑고 푸른 하늘가로 울려 퍼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기쁨과 행복에 겨워 눈물로 두볼을 적시는 그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손을 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소년단원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는 주체적인 조선소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대회를 통하여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 세대들이 누리는 끝없는 행복과 강성국가건설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튼튼히 준비해가고있는 조선소년단원들의 기상을 만방에 과시한 대회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전체 소년단대표들은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라는 구호선창에 《항상준비!》라고 힘차게 화답하며 소년단경례를 하였다.

대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토의되였다.

1. 소년 단원들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선군시대의 참된 소년혁명가, 소년근위대로 튼튼히 준비시킬데 대하여

2. 조선소년단 규약개정에 대하여 첫째의정에 대한 보고를 전용남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표들의 토론을 주의깊게 들어주시며 따뜻한

박수를 보내시였다. 대회에서는 첫째의정에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이어 둘째의정 《조선소년단 규약개정에 대하여》가 토의결정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대회는 《김정은선생님 발걸음 따라 앞으로》의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 대표들이 앞으로도 소년단조직을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 존엄높고 강대한 백두산대국의 미래의 주인공들의 대으로 더욱 역세게 다져가는데서 언제나 앞장에 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여러 단 위 들 을 현 지 지 도 하 시 었 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1521호기업소에 새로 건설한 성천강그물공장과 수지관직장을 현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1982년 8월 23일 기업소를 현지도하신 아버지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 세운 현지도표식비와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건설한 성천강그물공장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물 및 바줄 생산공정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공장의 외부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어 공장의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기술장비 및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성천강그물공장은 시공도 잘되고 생산문화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으며 적은 로력으로 여러가지 그물들을 대량생산할수 있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라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늘 성천강그물공장을 돌아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이제는 마음먹은대로 여러가지 그물을 대량적으로 생산할수 있게 되었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어 조선인민군 제1521호기업소에 새로 꾸러진 수지관직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수지관생산공

정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직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여러가지 규격의 수지관들을 보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직장에서 생산하는 수지관들이 금속관에 비해 수명이 길고 가벼울뿐아니라 운반하기도 쉽고 시공성이 좋은것으로 하여 상수관, 오수관, 수채관, 전기배선보호관 등으로 널리 쓰인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형 및 소형 수지관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 설비들의 특성과 제품의 질에 대하여 자세히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1521호기업소의 종업원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마전해수욕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마전해수욕장을 돌아보시면서 이곳에 어려여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마전해수욕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세계적 수준으로 꾸리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을 빛내고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해당부문과 함경남도당위원회의 일꾼들이 마전해수욕장개건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금부터 준비사업

을 잘하고있다가 올해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달라붙어 다음해 여름철전까지 마무리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새로 꾸러진 세계적수준의 해수욕장에서 마음껏 해수욕을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549군부대 돼지공장을 현지도하시였다.

전경도앞에 이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관리운영정형에 대해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생산력은 얼마이고 지난해 돼지고기를 얼마나 생산하였으며 전기와 사료보장대책은 어떻게 세워져있는가를 자세히 알아보시면서 돼지배설물에서 메탄가스를 뽑아 전기를 생산하라고 하신 아버지장군님의 말씀집행정형도 물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어 비육1호동, 새끼낳이호동, 종축호동, 사료가공장, 고기가공장, 종합조종실을 돌아보시면서 사양관리와 고기가공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돼지의 사양관리를 철저히 과학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에 사육과 수의방역 등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 연구소를 잘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549군부대 돼지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조선로동당의 축산정책을 높이 받들고 이악하게 투쟁함으로써 우리

군인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가공품을 생산하여 보내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고산과수농장을 현지도하시였다.

전망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2011년 6월 2일 아버지장군님께서 고산과수농장을 찾아주시였다고 하시면서 이 농장은 아버지장군님께서 특별히 관심하시였고 인민생활과 직결되어있는 중요한 대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농장에 심은 키낮은사과나무들의 생육상태를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농장에 건설된 방울식관수양수장에 들리시어 방울식관수정형을 료해하시고 양수설비들의 기술적특성과 성능에 대해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618건설돌격대 건설자들이 건설한 도로를 돌아보시면서 아버지장군님과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철령과 잇닿아지게 건설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618건설돌격대에서 자체의 힘으로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콩크리트지대와 기와, 환강생산기지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고산과수농장 능력확장공사를 아버지장군님께서 정해 주신 날자에 무조건 완공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가 중단

없이 즐기차게 진행되도록 편관부문들에서 618건설돌격대의 투쟁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618건설돌격대 건설자들과 농장의 종업원들이 능력확장공사와 과일생산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건설한 보성버섯공장을 현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균생산과 기질준비, 재배공정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버섯품종의 특성에 맞게 생산에 필요한 원료물질들을 준비하고 가공하는 기질생산공정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어 여러 재배장들을 돌아보시면서 버섯재배방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을 보고 또 보시면서 멧쟁이공장이라고, 군인건설자들이 공장을 정말 잘 건설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보성버섯공장의 전체 종업원들이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자기들앞에 맡겨진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맛있고 영양가높은 버섯을 많이 생산하여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보내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오성산의 초소들과 조선인민군 제50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6월 2일 오성산을 지키고있는 초소들과 조선인민군 제50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한치만 잘못 밟으면 아찔한 천길벼랑, 한줄기 바람에도 금시 무너져내릴것만 같은 바위들이 첩첩 둘러싸인 가파로운 152굽이 험한 길을 오르시어 오성산정점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549대련함부대장으로부터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1998년 8월 3일과 11월 10일 한해에 두차례나 오성산에 오르시였던 아버지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현지도표식비를 돌아보시고 전방지휘소에 들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부대가 맡고 있는 임무와 정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군부대에서 최고사령부의 기도에

맞게 작전전투임무를 수립하였으며 경상적인 전투동원태세를 빈틈없이 갖추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785군부대의 감시소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근무를 수행하는 감시근무성원으로부터 근무수행정형을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감시소를 지키고있는 소대병실에 들리시어 군인들을 만나시였다.

원수님께서서는 오성산의 군인들이 보고 싶었다고, 반갑다고 하시면서 소대에 쌓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565군부대관하 1대대 3중대의 병실, 교양실, 식당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중대에 쌓안경과 자동보총, 기관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아버지장군님께서 오성산의 군인들을 늘 가슴에 안고 사시였다고, 장군님의 그 마음을 안고 자신께서 왔다고 하시면서 군인들을 한명한명 자신의 곁에 세우시고 또다시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최전연초병들이 조국의 대문을 철벽으로 지키고 있기에 우리 인민이 발전잠을 자고 최고사령관도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시면서 동무들을 굳게 믿는다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어 적들과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까칠봉초소로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까칠봉초소에서 적진까지의 거리는 불과 350m밖에 되지 않는 위험천만한 곳여서 지휘관들은 절대로 그곳에만은 나가실수 없다고 원수님께 간절히 말씀올리였다. 최고사령관이 최전연을 지키는 병사들을 만나고 기념사진도 찍었다는것을 알

면 그들의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그것을 생각해서라도 꼭 나가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야전차를 초소로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동무들의 뒤에는 고향으로 가는 길이 있고 고향에는 사랑하는 부모형제들이 살고있소,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마시오, 그리고 이곳은 결코 외진 초소가 아니요, 최고사령관이 동무들과 함께 있소라고 하시며 오성산에 자주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까칠봉초소의 군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507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영정보고를 받으신 다음 작전연구실에 들리시어 부대의 임무수행정형과 훈련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고도의 격동상

태에서 자나깨나 싸움준비만을 생각하며 훈련을 실속있게 벌려 지휘관들과 군인들을 뿔뿔 나는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준비시키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가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부대의 싸움준비를 완성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연혁소개실과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군인회관에 들리시어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진행정형에 대해 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부대에서 직관물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고있다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장병들이 사회주의조국의 최전연초소를 철벽으로 지켜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지도 어언 13년이 된다.

은 겨레는 삼천리강산에 조국통일의 기운이 뜨겁게 차넘치던 6.15시대를 잊지 못하고있으며 하루빨리 북남관계가 개선되며 통일의 새 국면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6.15공동선언의 발표는 외세가 강요한 분렬과 대결의 역사를 종지부를 찍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특기할 사변이다.

그러나 오늘 안팎의 반통일세력의 엄중한 도전으로 6.15가 처참하게 짓밟히고 그 마지막유산마저 말살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문

에 놓이게 된것은 실로 통란할 일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기업가들은 피눈물을 뿌리며 개성공업지구정상화와 금강산관광개개를 호소하고있으며 북과 남으로 흩어진 가족들은 생전의 마지막한인 혈육과의 상봉을 예라게 고대하고있다. 민족의 구성원이라면 어찌 오늘의 이 비극적사태를 외면할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금강산관광개개와 개성공업지구정상화, 인도주의문제해결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정의와 야망은 《진정성》이니, 《남남갈등》이니, 《당국회담회피》니 하는 일로당도않은 궤변들로 부정되고 모독당하였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말하는것처럼 《남남갈등》을 조성하려 한적도 없고 남측당국을 《합바지》로 본적도 없으며 《옛것어라.》는 식으로 대한적도 없다. 북남대화를 대결의 목적에 약용하면서 정략적으로 다루고있는것은 다름 아닌 남조선당국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비를 가리며 공허한 말장난과 입세름으로 시간을 보낼 생각이 없다. 만일 북과 남이 서로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운다면 북남사이의 현안문제는 언제가도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을수 없게 될것이며 남조선기업가들을 비롯한 각계층의 절망과 온 겨레의 실

망은 더욱 커지게 될것이다. 조성된 사태와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로부터 그리고 남조선기업가들을 비롯한 각계층의 절절한 청원을 고려하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중대립장을 천명한다. 1. 6.15를 계기로 개성공업지구정상화와 금강산관광개개를 위한 북남당국사이의 회담을 가질것을 재의한다. 회담에서 필요하다면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문제도 협의할수 있을것이다. 회담장소와 시일은 남측이 편리한 대로 정하면 될것이다. 2.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국제관광객구에 대한 남조선기업가들의 방문과 실

무접촉을 시급히 실현하며 북남민간단체들사이의 래왕과 접촉,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것을 재의한다. 우리는 이미 개성공업지구기업가들의 방문을 승인한 상태이며 금강산기업관계자들의 우리측 지역방문도 허용할것이다. 뿐만아니라 남조선민간단체들의 래왕과 접촉, 협력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있다. 3. 6.15공동선언발표 13돐 민족공동행사를 실현시키며 아울러 7.4공동성명발표 41돐을 북남당국의 참가하에 공동으로 기념할것을 재의한다. 북과 남 민간단체들과 함께 당국의 참가하에 6.15공동선언과 7.4공동성명발표일을 공동으로 기념하면 의의

가 클것이며 북남관계개선에 기여하게 될것이다.

4. 북남당국회담과 남조선기업가들의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방문, 민족공동행사 등을 보장하고 북남사이의 현안문제를 원활히 풀어나가기 위해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제의에 호응해나오는 즉시 판문점적십자협력통로를 다시 여는 문제를 비롯한 통신, 연락과 관련한 제반 조치들이 취해지게 될것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통일과 평화변명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립장은 일관하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신뢰구축과 북남관계개선을 바란다면 이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불필요한 피해망상중에 사로잡힌 억측과 의심을 거두고 우리의 대범한 용단과 정의있는 제의에 적극 화답해나와야 한다.

조 선 — 하 나 의 대 가 정

장구한 세월 인간은 더없이 살기 좋고 행복한 나라를 《지상천국》이라 부르며 그러한 세상에서 살기를 소원해왔다. 하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그것을 실현할가능한 꿈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말 그렇가. 해외에 살면서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회제도를 공정하게 평가하고싶은 충동속에 오늘 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붓을 든다.

* * *

나는 언젠가 《서방의 눈으로 본 회교도》라는 책을 읽은적이 있다. 그 책의 첫장에는 이렇게 써져있었다.

《천국을 찾아 헤매다가 돌아와보니 집이 천국이다.》

가족이 사는 집, 집에는 살과 피를 나누는 부모들과 자식들이 함께 산다. 이 아늑한 공간에는 남에 대한 미움도 권력타도도 숭길것도 없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과 심심이 가장 안정되고 편한 곳으로서의 집을 《천국》이라 하였던것 같다.

그러나 가진것이 없어 착취받는자의 집에는 눈물과 설움이 넘친다. 집없는 사람은 더 말할것도 없다. 어제도 그랬지만 인간의 지성이 우주에 사람이들 정류소를 만드는 이 시대에 그 처참성은 더욱 가혹해지고있다. 가족이 해체되고는 더 말할것도 없다. 이남에서만 하여도 어머니가 7살 어린 자식을 죽여 못가에 버리는가 하면 부모가 자식을 목을

러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칼로 찢어죽이고 보험금을 노린 남편이 아내를 살하는 섬뜩한 참변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있다.

말그대로 자살왕국에 살인천국이다. 집과 가족은 인간에게 행복의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지만 정반대의 경우를 우리는 지구상 곳곳에서 매일 매 시각 보고 듣고 느끼고있다.

인간이 말편히 미움없이 화복하게 살수 있는 《천국》은 없는가.

여기서 잠깐 일본에 사는 동포녀류작가의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자. 그의 이름은 유미리. 그는 지난해 말 이남의 《도서관 615》에서 《평양의 여름휴가-내가 본 북조선》을 펴냈다. 작가가 세차례의 평양방문을 자기 인생과 가족이야기를 통해 담은 책이다. 이남 정치인들과 문학평론가들은 《유미리를 통하여 문독 6.25전쟁정후를 밝혀준 버트레로부터 그 이후의 루이제 린치가 존현해주었던 북의 실제가분단의 렌즈가 아닌 통일과 민족의 실체로 세상 다가온다. 그 조국이 마음에 뿌리내리고있음을 그 너는 자각한것이다.》라고 썼다.

그녀는 북체제나 사회주의에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듯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좋은 느낌으로 와닿는 아름다운 국명, 내게는 환상의 조국이다.》

왜 환 상 의 조 국 인 가

6.25전쟁과 60여년의 분열의 후과로 이남사람들속에서는 북에 대한 편협한 시각이 상존해있다.

그러한 그릇된 견해가 지금도 보수적인 언론들에 의해 더욱 확대재생산되고있는 때에 재일녀류작가가 그 리념적지형에서 벗어나 인간본연의 내재적 측면에 자리잡고있는 북주민들의 가치관을 조명해본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그의 눈에 비친 북은 사회전체가 한 가족이었다.

북주민들은 자기 나라를 《사회주의 우리 집》이라고 부른다.

주제사관에 기초한 철학적, 인식론적접근은 잠깐 미루더라도 북사회와 체제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을 보면 왜 북주민들이 자기 조국을 《하나의 대가정》이라고 하는지 쉽게 이해할수 있다.

솔직히 말하자 지금 그들에게는 부족한것도 적지 않고 요구되는것 또한 많다. 물론 물질적부족을 기본적으로 넘두어 둔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그 이상의 것 즉 사회적관계속에서의 인간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자본주의사회에 비해 훨씬 상위에 있다.

세상에는 까만 거짓말과 하얀 거짓말이 있다고 했다. 자기들은 굶었어도 《우리는 많이 먹었으니 어서 너나 먹어라.》하며 어려운 때일수록 자식들을 더 위해주는 부모들의 말이 하얀 거짓말에 속하고 까만 거짓말은 남을 속여 등쳐먹는자들의 언행으로서이는 상대방에 대한 일종의 정신적폭격이다.

까만 거짓말이 많은 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이고 하얀 거짓말이 많은 사회는 화복한 사회이다. 자기희생을 전제로 남을 위해주는 이런 사랑, 이런 정으로 사회구성원들이 마음을 나눈다면 엄동에도 춥지 않고 폭우에도 배고프지 않는 법이다. 역으로 먹을것, 입을것, 정이 많아도 권선징악이 뒤바뀐 세상, 정신적사자극대추의 인간들의 삶은 죽음 이상의 고통을 불러온다. 때문에 인간의 정신적아름다움은 아무리 번쩍거리는데 물질적부족의 앞에서도 절대로 허리

를 굽히지 않는다. 그래서 이북은 남들보다 땀땀하고 궁지스럽고 또한 재부가 더 많은것이다.

북에서는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모든 사람들의 생활의 갈라속에 깊숙이 자리잡고있어 오래다. 부모없는 자식들을 스스로 데려다 키우는 처녀들도 이것이 어머니들도 있으며 두눈을 잃거나 팔다리가 없는 영예군인들에게 시집, 장가를 가는 청년들도 많다. 자식없는 늙은이들을 친부모처럼 모시며 그들의 로후를 지켜주는 젊은이들과 물에 빠진 이름모를 아이들을 건져내거나 불타는 집에 뛰어들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한몸을 아낌없이 내대는 미지는 일상사로 되고있다.

남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서슴없이 던지는것, 이것은 인간사랑과 화복의 최고발현이 아닐수 없다. 이런 덕행이 선포되는 사회가 개인주의에 몰락하여 《내 아니면 너》라는 가치관이 판을 치는 사회와 대비조차 할수 없이고 상호고 위대하다는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언젠가 북에서 4박 5일동안 봉락된 막장안에 갇힌 랑부들이 몸을 움직일수 있는 마지막순간까지 팔과구멍을 뚫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작업계획수행을 위한 일을 한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도저히 믿을수 없는 일이었다.

정말 그럴수 있을가.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다.

어떤 경우에도 집단이 자기들을 구원해주리라고 믿었기때문이다. 따라서 구원해줄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는것은 도리어 어긋난다는것이다. 소설같은 이야기는 자기 집단에 대한 절대적인믿음이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 북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감동의 화곡이다.

지난해 도이쉴란드에서 귀국하던 결혼식을 해야 한다는 북의 한 청년을 만났다. 새 가정을 꾸리려 앞으로 무엇

을 차려놓고싶은가 김 현 환

그 청년의 대답이 인상깊다. 결혼하여 한생 갖추고 살아야 할 가정재산항목을 부디 알려드린다면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웃음이고 셋째는 화복이라 하였고 그러면 억만장자가 부럽지 않고 그렇게 되면 자기의 부모들과 동네사람들이 제일 기뻐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북에서는 새 가정의 탄생과 함께 자기 고유의 정신적재부로 이웃을 이루고 그렇게 모인 가정들이 지분을 잇고고 위해주고 사랑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화복한 대가정으로 더욱 튼튼히 자리매김한다.

성정이 순박하고 량심이 깨끗하며 남을 속일줄 모르는 고지식함에 맡은 일

인 민 의 집 , 화 복 한 대 가 정

세상에 백성을 위한다는 정치가도 많고 사회의 화복과 단합을 추구하는 영도자도 많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로 이루어낸 위인이 있다면 가히 기적의 하느님이라 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그 기적을 이루어낸 김일성주석께서는 그 하느님을 곧 백성이라 하셨다. 다시말하여 백성이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하늘이라는것이다.

수수천년 백성은 있었을지 누가 그들을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웠고 더우기 복잡다단한 사회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만들수 있었는가.

김일성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1권 첫째지를 열면 이런 명제가 있다.

《〈인민위전〉,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것이 나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었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믿고 그 힘에 의거할데 대한 주제의 원리야말로 내가 가장 숭상하는 정치적신앙이며 바로 이것이 바로 하여금 한생을 인민을위하여 바치게 한 생활의 본령이었다.》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면 천하를 그의 백전 승리하지만 인민을 멀리하고 그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라는 진리를 삶과 투쟁의 교훈으로 하여 김일성주석께서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의 집을 지으셨다.

미국을 위시하여 15개의 추종국가군대가 달려들어 6.25 전쟁이라는 야만적용단폭격을 가했지만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민의 집을 굳건히 지켜내시고 더 아름답게 가꾸시었다.

인민의 집을 만드는 북의 정신적지주는 자주이다. 이것이 눈에 든 가시가 되어 제국주의자들은 세기를 이어 북을 공격하고 있다. 그 잔인한 력사는 벌써 70년대에 이른다.

제국주의자들의 꿀길줄 모르는 순악한 포위압살책동속에서 인민의 집을 대를 이어 지켜내신분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이다.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과 맞대결을 펼치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을 위해 바치신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인민사랑의 일화는 실로 하늘의 별만 꼽이나 많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생전에 자신의 한생을 위하여 인민이라는 두글자밖에 남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어천만사에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는 《인민위전》의 사상은 이북 력대수령들의 지론이고 좌우명이다.

-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 발이 닳도록 인민을 위해 뛰고 또 뛰어야 한다.

-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라.

군센 의지와 신념은 그들만의 자산이고 그들만의 정신적

유산이다. 이것이 바로 된 대북편이고 이북사회에 대한 정확한 평가의 기초라고 생각한다. 다만 서방언론의 지나친 편파보도로 잘 알려지지 않은 북 정치체제의 비밀아닌 비밀이 되었을뿐이다. 이런 나라, 이런 인민을 어떻게 서방이 떠드는 《전체주의 회생물》이라고 하겠는가.

보수론객들이 꼭 그렇게 표현하고싶다고 억지를 부린다면 나는 이렇게 말해주고싶다. 그런 전체주의라던 인간세상의 모델이 되고도 남는다. 누가 나 바라고있으나 누구도 이루지 못하는 북의 집단주의사회가 바로 인간의 리상사회이고 만인이 세기를 두고 바라는 《천국》이라고 말이다.

-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김정은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께서 자주 강조하시는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지론이다.

김정은령도자의 한없이 인자하고 후덕한 인품은 세상천하가 얼어붙은 겨울에도 따뜻한 봄을 느끼게 한다.

그분께서는 인민들과 병사들을 만나 사진을 찍으실 때면 어깨를 걸고 팔을 끼신다. 어린 아이들을 만나시면 품에 꼭 껴안고 놀지를 못하신다. 장제도와 무도에 갔다오실 때 허리치는 바다물속에 뛰어들어 배워주시는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을 보면 빨리 들어가라고 혼들리는 작은 복선우에서 오래동안 손을 저어주시는 그분의 눈가는 벌써 젖어있었다. 그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천지를 격동시켰다. 정이 많은 어머니의 참모습을 보았기때문이다.

진정이 고인 어머니의 뜨거운 마음은 북의 《로동신문》에 자주 실리는 령도자와 백성들간에 오고가는 친필내용을 보면 더 잘 알수 있다.

지난해 12월 일본에 사는 한 동료로부터 불미스러운 경력을 가진 귀화한 일본인녀성이 올린 편지에 김정은령도자께서 친필을 보내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분께서는 친필에서 자식의 이름을 놓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며 어루만지고 살점도, 피도 서슴지 않고 주는것이 어머니이고 자식이 잘되는것을 보며 기뻐하고 그것을 무엇보다 바랄수 없는 한없는 락으로 여기는것이 이 세상 어머니들의 마음이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당을 어머니라고 하는것이 옳았다.

친필의 자자구구에 고여있는 사랑과 믿음의 크기를 수자로 다 계산할수 없다. 수천만의 아들딸들을 거느린 대가정의 어머니마음에 한계가 없음을 실감한다.

나라의 정사를 돌보시느라 시간이 바쁘신 일국의 령도자께서 유치원아이들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기쁜 일, 괴로운 일 모두 저어 올린 편지를 다 보내주시고 사랑과 믿음의 친필을 보내주시는 나라는 북말고 세상 어디에도 없다.

어느 한 시민은 세상에 어머니와 해 빛만 있으면 인간은 산다고 했다. 이북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이 어머니이고 그 사랑은 햇빛이라고 한다.

북 《로동신문》이나 인터넷에 실린 기록상들을 통해 김정은령도자의 품을 당의 품, 어머니품으로 노래하며 충정과 의리를 다해가는 인민의 행복상을 볼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련인들의 사랑조차 무색할 지런 판계를 어떻게 령도자와 백성이 맺을수 있을가》, 《지구인력과도 같은 지런 혈연적판계는 핵폭탄으로도 가리지 못한다.》

참으로 북에서의 령도자와 인민의 관계는 화복이 상상으로 그려낸 현실적작품의 명장면들 같아 눈을 비비게 한다. 인류사가 알지 못하는 뛰어난 천품으로 백성을 하늘처럼 위하는 인민적 령도자의 혈통을 대대손손 이어가는 이북사회는 백성에게 천세만세의 행복을 주는 지상락원이다.

북의 군인은 자기들을 하늘로 내세우는 령도자를 그 하늘의 태양이라고 칭송한다. 하늘과 태양으로 조화되는 가를 수 없는 이 운명적판계를 이북은 혼연일체라고 칭하며 대가정이라고 노래한다. 돈 한푼 안받고 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또 장학금까지 주며 대학공부를 시키고 돈 한푼 안받고 엄청난 수술비를 포함해 필요한 각종 약을 공급하며 치료를 해주고 새 집을 안겨주는 사회, 《부모가 자식들을 양육하면서 돈을 받지 않는다.》는 말의 참의미가 그대로 이북사회에 함축되어있다.

지난해 평양 창전거리에서 새집들이를 한 로동자의 집을 찾은 어느 한 외국인 이 집 평방수와 집값이 얼마인가고 물었다고 한다. 그런데 국가에서 무상으로 집을 주는 이북에서 그것을 알 사람이 몇이나 되랴. 고급동서에 전후후 무한 일이었다.

그후 귀국한 그 외국인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북주민들은 자기들이 사는 집의 평방수와 값을 모르는 《행복한 부모》들이다. 그들은 그것을 알아야 할 이유를 모른다. 그것이 그들의 권리인것 같다.》 그러자 함께 북을 다녀온 열의 동료자 한 마더 더 보았다. 《북주민들은 국가에서 너무나 많은것을 그저 받으면서도

북 에 한 번 가 보 시 라

북은 자기들이 내세운 인간본연의 권리와 철학과 가치관을 모독하고 빼앗으려 한다면 추호도 용서치 않는다. 이를 문제시하는것은 무지의 극치이다.

미국을 위시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에 대한 강경 《제재》조치로 조선반도에 침에한 대결국면이 조성된것도 결국은 북에 대한 올바른 리해와 객관적판단을 떠난 극단한 편견과 중요 심때문이다.

이남에서 음악공부를 했으며 현재 미국에 살면서 북을 방문하고 베스트셀러 《재미동로 아주마 복한에 가다》를 펴낸 저자 신은미씨가 지난해 대구에서 한 강연의 한 대목이 흥미롭다.

《난 보수적인 집안에서 태어난 보수적시각의 재미교포이다. 북에 가보기 전에는 뿔달린 도깨비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남편을 따라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시작한 40일 관광기간 민족정서의 공유가 느껴지고 오히려 따뜻한 인간성엔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쓴 글을 인터넷에 려제했더니 〈종북〉, 〈빨갱이〉라는 글들이 올랐다. 북에 가서 민족에, 인간성을 느끼게 종북이려면 나는 기꺼이 종북이 되겠다.》

관광을 하면서 그 녀가 갖고있던 관심은 북이 얼마나 잘살고 못살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잘살고 못사는것은 언젠가 바뀔수 있다. 문제는 북과 남이 한 공동체를 이루며 더불어 살수 있는가 하는 민족정착인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이상의 크나큰 인간세상의 보물이 있다는것을 그녀는 발견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진정한 의미

를 한푼 안내는 〈량심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북체제이다.》

자본주의세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꿈나라이야기와 같은 신비의 극소제가 아닐수 없다. 북에서는 일상사가 되어있는 일이 밖에서는 환상처럼 들리는것은 바로 어느 나라도 북을 닮기는 고사하고 죽어도 흉내조차 낼수 없기때문이다.

이남은 소수의 엘리트들에게 권력과 문화가 집중되어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로 치장되고있지만 민중이 력사의 흐름에 참여하는것은 철저히 차단되고 탄압을 당한다. 민중을 력사의 주체로 보지 않고 통치의 대상으로 삼기때문에 민중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질수 없다.

인민을 하늘의 지위에 놓고 모든것을 거기에 북중시키는 북은 분명 누구나 본받아야 할 인류사회의 모델국, 인민의 지상천국이다. 아직은 부족했지만 있어도 인간본태가 살아있고 청순한 인성으로 보살핌과 나눔이 있고 이웃에 대한 배려가 미덕으로 자리잡은 사회, 령도자와 인민이 부모와 아들딸의 관계를 맺고 받들고 사랑하며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인류최초의 리상사회가 바로 북이다.

북의 매 가정에선 필수품처럼 벽에 걸려있는 하나의 명화가 있다. 그것은 《(家和万事成)가화만사성》이다. 이 명화는 김일성주석의 어록에 나오는 것이다.

가정이 화복하면 만가지 일이 다 잘된다는 이 명구처럼 북사회가 하나의 화복한 대가정으로 되었으니 그 어떤 시련과 고난속에서도 나라일이 잘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가정에 담담고 사는 인간이면 누구나 바라는 《가화만사성》. 그것을 한가정의 트락을 넘어 일국의 정치에 실현시킨것은 실로 기적이다.

를 깨달은 그녀의 령행기는 자기 삶에 대한 반성문이고 성찰이였으며 비정한 국가들에 던지는 성도문이고 북에 대한 반듯한 안내서였다.

지금 이남과 자본사회들에서 《해고복직》이니, 《무상교육》이니 하는 사회복지정책실현요구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다. 결국 북에서 실시되는 정책들을 따라배우려고 하고있는것이다.

물론 북에 비하면 원시적인 단계라 할수 있고 또 이남과 같은 사회에서 근원적해결을 기대할수는 없지만 명백한것은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그 길로 가야 하고 또 반드시 갈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북의 현실앞에 수십년동안 반복악선전에 의해 화석처럼 굳어졌던 편견의 성벽들이 얼음산처럼 녹아내리는것은 필연적이다. 북에 대한 극단적, 편파적인식은 진실의 밝은 빛에 의해 반드시 허물어질 것이다.

북은 지금 글란지계의 아름다운 인간의 대화원우에 인공지구위성까지 싸우리며 정치군사강국에 이어 경제강국의 꿈을 현실로 펼쳐간다. 그 꿈이 완전히 실현되는 그때의 모습은 상상해보기에도 가슴벅차다.

세상사람들이여, 인간이 무엇때문에 사는가, 돈이 있으면 만사가 해결되는가, 돈에 매인 사회는 약육강식의 장클 사회임을 북을 반면교사로 새겨본다. 나는 권고한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아, 삶이 고달플 때 《천국》을 찾아 헤매지 말고 북에 한번 꼭 가 보시라.

(필자는 재미지주사상연구소 소장임)

북 남 공 동 선 언 들 은 자 주 통 일 의 기 치

우리 겨레가 민족분열의 력사를 끝장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과 통성변영의 길을 열어나가자면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고수리행하여야 한다.

려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을 이룩해 나가는데서 우리 겨레가 높이 들고 나가야 할 불멸의 기치이다.

2000년 6월에 채택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갈것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그런것만큼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재의 힘으로 이루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인은 북과 남의 우 리 민족이며 그 어떤 외부세력도 우 리 민족을 대신할수 없다. 사대와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것은 력사에 의해 실증된 진리이다.

6.15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우리 민족끼리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민족적화해와 조국통일을 앞당길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었다.

10.4선언은 우리 민족끼리의 령념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민족공동의 평화변영을 위한 방도들을 밝힌 실천강령이다.

10.4선언에는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갈데 대한 문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갈데 대한 문제, 군사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북남관계와 통일운동발전에서 나서는 실천적인 문제들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6.15공동선언발표후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는 일대 전환적국면이 열리게 되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합성이 온 삼천리를 진

감하는 가운데 북과 남사이에는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들이 진행되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어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하늘길, 바다길, 땅길이 열려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민족공조의 통일대화가 도도히 끊이치고 동, 서해선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는것과 같은 사면도 일이나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촉진시켰다.

려사적경험은 북남공동선언들이야말로 자주통일의 표대이며 선언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겨레의 넘넘인 자주통일, 평화변영은 반드시 이룩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6.15자주통일의 기치밑에 활력있게 전진해온 북남관계는 남조선에서 리명박보수 《정권》이 출현함으로써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다. 리명박 《정권》은 반복대결적인 《비핵, 개방, 3 000》을 《대북정책》으로 내놓고 시종일관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소동에 매달림으로써 대화와 협력

의 북남관계를 대화도, 협력도 없고 포란이 오가는 살벌한 대결관계로 만들었다.

그러던 북남관계가 6.15공동선언 발표 13돛이 되어오는 지금 새로운 대화국면에 들어서고있다.

얼마전 공화국이 개성공업지구정상화와 금강산관광개개 등을 위한 대범하고도 성의있는 대화제의를 내놓은것은 대결과 전쟁으로 질주하는 북남관계를 대화와 협력으로 전환하고 자주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 가려는 승고한 일념과 통일의지의 발현이다.

지금 온 겨레는 북남당국회담이 하루빨리 열리고 회담에서 성공적인 결실이 맺어져 막혔던 북남관계가 열리고 환희와 격동의 6.15통일시대가 회복되기를 바라고있다.

이제 북과 남은 6.15의 기치밑에 손을 다시 맞잡고 화해와 협력의 길, 북남공동선언리행의 길에 적극 나섬으로써 온 겨레와 세계에 더 큰 기쁨을 안겨주어야 할것이다.

리 어 금

《전쟁반대 ! 》, 《평화실현 ! 》

6.15 남측위원회 전북본부 《통일념원마라손대회》 주최

6.15공동선언발표 13돛 기념 《통일념원마라손대회》가 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원회) 전북본부의 주최로 전라북도 전주에서 진행되었다.

각계층 군중 3 000여명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전문이 랑독된 다음 발언들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평화통일의 의지를 담아 이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말하였다.

통일은 살 길이고 전쟁은 죽는 길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모두가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힘을 합쳐나갈데 대해 강조하였다.

이여 마라손경기가 진행되어 있었다. 《전쟁반대!》, 《평화실현!》 등의 구호를 웨치며 출발선을 떠난 참가자들은 6.15km를 힘차게 달리며 6.15공동선언리행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북의 당국간 회담제의를 열렬히 환영한다》

남 조 선 각 계 층 이 지 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기념하여 13쪽을 계기로 북남 당국간 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공화국의 제의를 남조선 각계층이 지지해나서고 있다.

지난 6일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당국간 회담제의를 《공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정식 표명하였다.

통일부대변인은 《북의 당국간 회담제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며 《당국간 회담이 남북간 신뢰를 쌓아나가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이날 논평을 발표하여 《북이 오는 6.15공동선언발표 13주년을 계기로 개성공단정상화와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남북당국간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며 《북의 남북당국간 회담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북측에서 리산가족,

친척상봉문제와 관련해서도 남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민주당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북의 공식제의를 환영한다.》면서 《북의 제의를 수용해 긴장국면을 완화시키는 전환점으로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대변인은 《북의 당국간 대화제의와 《정부》의 신속한 긍정적인 회담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난 몇달동안 최고조로 치달은 군사적 긴장속에서 살얼음을 걷는 듯 했던 《한》 반도정세가 이제 평화로 한반자국 내디딜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6.15공동선언을 기념하는 남북공동행사성사의 걸림돌이 모두 사라진만큼 행사 개최를 위한 《정부》의 진향적인 태도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6일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여 《《정부》는 북의 이번 대화제의를 조건없이 수용하여 남북관계전환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는 민간 노력에 존중하고 그 요구에 적극 화답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방북과 6.15공동행사와 등 민간의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에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진보정의당대변인은 논평에서 《개성공단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놓아야 한다. 공동행사는 상호신뢰의 첫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만약 나쁜 일도 풀리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에 공화국의 회담제의에 개성공업지구 입주업체들과 금강산지구 기업협의회 성원들도 기뻐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화제의를 우선 환영하고 우리 《정부》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우리가 열정도 대화에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북측이 수차례 좌절되고 공단정상화를 위한 명쾌한 답이 없어 매우 답답했다.》면서 《그런 가운데 이런 소식이 갑자기 전해져 대환영》이라고 하였다.

개성공단정상화 비상대책위원장도 《북측이 개성공단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제시해줬다니 환영한다.》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졌다.》고 말했다.

금강산지구 기업협의회의 성원들은 남북당국간 대화제의와 수용에 대해 《가슴벅참을 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금강산관광재개를 위

해 북측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5년간 담보상태에 있던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대아산에서는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남조선의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이번 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이 조속히 정상화되길 희망한다.》며 《향후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당국 모두 적극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조선의 각계 시민단체들도 북의 대화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리명박 《정부》이후 결성된 남북관계를 풀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본사기자

중 국 정 부

《북남 대화회복 환영》

중국정부는 6일 공화국이 북남당국간 회담을 제의하고 남측이 이를 수용한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기기자회견에서 《북남쌍방이 접촉과 대화를 회복하기로 한것을 기쁘게 느끼고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

다. 그는 《우리는 줄곧 북남쌍방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호상관계를 개선하는것을 지지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련국들이 찾아오기 어려운 대화의 분위기를 소중히 여겨 정세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본사기자

사 진 으 로 보 는 6. 15



본사기자

모자만 바꾸어쓰는 기만적인 놀음

최근 남조선과 미국 사이에 2015년 12월에 있게 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놓고 그 이후 시문제에 논의가 분분하다.

그런 속에서 지난 1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남조선미국국방장관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후에도 현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사한 연합지휘구조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전지구사령부》와 유사한 연합지휘구조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전지구사령부》와 유사한 연합지휘구조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전지구사령부》와 유사한 연합지휘구조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남조선군부는 《미군이 다른 나라군의 지휘를 받는 형태의 구조는 사상초유의 일》이라고 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후 저들이 남조선에서 군사적주도권을 행사할것이라고 떠들고 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이다.

그것도 그렇듯이 미국이 그 무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미명하에 《한미연합전지구사령부》를 내오고 남조선군에 그 지휘권을 넘겨주겠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한미연합사령부》의 허울만 바꾸는것이기에 때문이다.

1994년에 있던 《평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실패로 보자. 당시 남조선군은 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평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았지만 《작전 및 정보능력과 정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평시에도 일부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령관에 귀속 《위임》하였다. 6개 함으로 된 이른바 《연합전환위임사항》(《CODA》)에는 연합연습 및 합동훈련의 계획과 실행, 전시작전계획 수립 발전, 전

생역제방어 및 정전협정준수를 위한 연합위기관리사, 지휘통제통신 컴퓨터정보보호운용 등 《평시작전통제권》에서 기본으로 되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하기에 당시 남조선의 각계는 《평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놓고 《속이 없는 전방》이라고 야유조소하였다.

이번에도 다를바가 없다.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이후 새로 구성되는 《한미연합전지구사령부》의 지휘권을 남조선군이 맡아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알맹이는 다 빼먹고 빈 강동만 넘겨주는 식이다. 최첨단기술이 동원되는 현대전쟁에서 기본은 정보와 그에 따른 작전 및 전술, 지휘자동화체계, 연합군수 등이다. 그런데 지금 《한미연

합사령부》에서 이러한 핵심은 모두 미군이 틀어쥐고 있다. 앞으로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한미연합전지구사령부》가 창설된다고 해도 그 핵심은 어디까지나 미군이 차지할 것이다.

더우기 이번의 명칭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은 《한미연합전지구사령부》로 남조선을 저들의 대아시아배전 구역에 필요한 한개 작전지구로 규정하려 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탐욕의 눈초리를 돌리고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는 미국이 이처럼 중요한 작전지역에서 남조선의 지휘에 부종하겠는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다. 전쟁수행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정보, 작전, 연합군수, 전술, 지휘자동화체계 등에서 압도적우위에 있는 미군이 남조선군사령관의 단일지

휘체제를 그대로 따르라고 기대하는것자체가 터무니없는 소리이다. 더우기 《한미연합전지구사령부》의 부사령관직을 맡기로 한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모든 작전권은 사실상 미군이 행사하게 되어있다.

실사 남조선군이 연합전지구사령관직을 차지한다고 해도 허수아비존재로 될뿐이다. 이렇게 놓고보면 미국이 《한미연합전지구사령부》를 내오려고 하는데는 눈아보아 남조선군을 영원히 가로막아놓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남조선군을 전정수수인, 침략의 돌격대로 보다 효과있게 써먹으며 미군위분담금을 더 크게 들먹여주는 음흉한 속셈이 있는 것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모자만 바꾸어쓰는 기만적인 놀음을 벌일것이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영영 물러가야 한다.

전 절 호

불법 부당 한 요구

이달말 미국의 워싱턴에서 남조선주둔 미군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하여 남조선과 미국간에 협상이 진행된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남조선의 진보적인 통일운동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발표한 조사자료가 세간의 이목을 끌고있다. 그에 의하면 남조선과 미국의 국방예산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조선의 미군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이 주장하는 42%가 아니라 65.2%(직접지원비와 간접지원비를 포함하여 총 1조 6 749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남조선에 남조선강점 미군의 《방위비분담금》을 50%이상 올릴것을 요구해왔던 것이다.

문제로 되는것은 남조선 《정부》가 저들이 미국에 넘겨주려는 돈이 얼마인지도 모른채 미국의 비위를 따라 맞추는데만 급급해왔다는

사실이다. 명색이 《방위비》라지만 그것은 각종 명목의 군사시설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 군수지원과 같은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위한 유지비이다. 미군에 온갖 특혜가 부여되는 불평등한 《행정협정》에 의하더라도 원래 남조선강점 미군은 그 유지비를 스스로 부담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미국이 1980년대에 재정악화를 구실로 남조선에 《지원》을 강박하고 남조선 당국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1991년부터 남조선은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지불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분담금이 적다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그 액수는 해마다 줄러가는 눈덩이마냥 불어나게 되었다. 거기엔 친미사대를 베풀어온 친미세력들이 2008년

11월 제8차 《방위비분담금협정》에 의해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제멋대로도 용할수 있는 자유까지 얻게 되었다.

이런 협상에서도 미국은 남조선에 《방위비분담금》을 또다시 올릴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이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미국에 항변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에서 《불법부당한 요구》를 비난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미국에 항변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에서 《불법부당한 요구》를 비난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미국에 항변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웨침이 곳곳에서 울려나오고 있다.

권 지 혜



지난 1일 남조선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어느 한 국제모임에 참가하여 공화국을 반대하는 또 한차례의 쑥덕공론을 벌였다. 여기에서 그들은 《북의 도발과 위협은 절대 용납할수 없다.》고, 《도발과 위협으로 얻을것은 소나도 없다.》고, 《우리는 관에 박은 소리를 하던 끝에 《북의 핵과 재래식위협에 대응해 대북억제력을 강화》하고 《능력면에서 북을 압도할수 있는 연합방위능력을 키우도록 동맹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궤변으로서 공화국을 거꾸로 압살하려는 기도를 그대로 드러낸 공공이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오늘 조선반도에서 정세를 긴장시키며 전쟁점적으로 몰아가고있는자들은 다름아닌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다.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물론 그 주변지역에서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매일과 같이 벌려놓고있는 내외호전세력들의 부침전쟁연습소동들은 조선반도에서 물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위협요소로 되고있다. 지금 이 시각도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은 부침전쟁의 화약배를 질계 풍기며 공화국에 대한 도발을 일삼고있다. 지난 3일부터 남조선군 특공 제5사단의 그 무슨 《국지도발대비훈련》과 11기계화보병사단의 기동훈련 등 크고작은 부침전쟁연습들이 련이어 벌어지고있다. 전략적

격기 《B-52》, 스텔스폭격기 《B-2A》, 스텔스전투기 《F-22》, 핵잠수함 《사이언》 호를 비롯한 미국의 최신핵전쟁장비들이 대대적으로 투입되어 웅군 두달 동안 진행된 사상 류례없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사상훈련도 모자라 연합해상훈련이요, 연합대잠수함훈련이요, 워우 하는 부침전쟁도발을 일삼고있는 호전세력들의 범죄적책들은 조선반도에서 도발과 위협의 장본인이 과연 누구인가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외호전세력들이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을 떠드는것은 흰것도 검다고 우기는 남강도적론리로서 조선반도간장격화의 책임을 회피하고 저들의 부침전쟁책들을 합리화하려는 어리석은 잔꾀에 불과하다. 엄중하것은 내외호전세력들이 공화국을 무력으로 타도할것을 기도해 공공연히 드러내것이다.

이번에 그들이 떠는 《대북억제력강화》란 부침전쟁책이라격강화하며 《능력면에서 북을 압도할수 있는 연합방위능력을 키우도록 동맹관계를 발전》시킨다는것은 미국과 남조선사이의 침략동맹, 전쟁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소리에 다른것은 아니다. 가는 것에도 행렬은 간다고 적대세력들이 반공화국압살기도를 버리지 않고 온갖 군사적모략과 공중이공을 벌려도 자주의 기치, 선군의 기치높이 나아가는 공화국을 추호도 건드릴수 없다. 장 명 화

남조선 단체가

미국제 무기구입책동을 배격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5월 30일 당국의 미국제 침략 무기구입책동을 규탄하는 134차 평화군축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얼마전 남조선과 미국의 집권자들이 머리를 맞대고앉아 《호상운용이 가능한 방어능

제 얼굴이나 들여다보아야

는 말이다. 최근 남조선당국은 그 무슨 《탈북청소년 강제북송 사건》이라는것을 들고나와 또다시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을 벌렸다. 이에 발을 맞추어 《새누리당》은 6월 립시 《국회》에서 범법적인 《북인권법》을 통과시켜보려고 악을 쓰고있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로 계속 소란을 피우면서 공화국의 영상을 깎아내리고 암살목적을 이루어보려고 무던히도 발악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자료를 의하면 남조선에서는 매일 6 000여건의 범죄가 감행되고있으며 살길이 막혀 하루 40여명이 차치한 사회를 저주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다고 한다.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범죄와 자살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면 남조선당국이 《국무회의》라는데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4대사악》책걸로 내세웠겠는가.

문제는 남조선의 인권실태가 이토록 험악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집권세력과 《새누리당》이 있지도 않는 《북인권》소동에 열을 올리고있

는 곳이 바로 남조선이다. 짐승도 낫을 붙일 때를 때려먹는것은 더 말할필요없다. 지난 5월 육군사관학교 기숙사에서 남자훈련생이 대낮에 너성훈련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한주일후에야 드러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문제는 남조선의 인권실태가 이토록 험악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집권세력과 《새누리당》이 있지도 않는 《북인권》소동에 열을 올리고있

는 사실이다. 최근 남조선당국은 그 무슨 《탈북청소년 강제북송 사건》이라는것을 들고나와 또다시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을 벌렸다. 이에 발을 맞추어 《새누리당》은 6월 립시 《국회》에서 범법적인 《북인권법》을 통과시켜보려고 악을 쓰고있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로 계속 소란을 피우면서 공화국의 영상을 깎아내리고 암살목적을 이루어보려고 무던히도 발악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자료를 의하면 남조선에서는 매일 6 000여건의 범죄가 감행되고있으며 살길이 막혀 하루 40여명이 차치한 사회를 저주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다고 한다.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범죄와 자살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면 남조선당국이 《국무회의》라는데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4대사악》책걸로 내세웠겠는가.

문제는 남조선의 인권실태가 이토록 험악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집권세력과 《새누리당》이 있지도 않는 《북인권》소동에 열을 올리고있

일본의 역사외교와 군국주의 부활책동을 규탄



일본의 역사외교와 군국주의 부활책동을 규탄

남조선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가 일본의 역사외교와 군국주의부활책동을 규탄하여 5월 30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인 오사카시장 하시모토가 일본의 과거범죄를 미화하는 행위를 해체해달라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일본정권들의 야스쿠니진자집단참배, 평화헌법개정, 과거침략사부정 등 일본당

국의 군국주의부활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일본이 미국과의 군사동맹강화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성명은 일본의 역사외교와 군국주의부활책동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판에 판에 《우편》다 평

후대들의 모습에 비친 사회상

얼마전 평양에서는 온 나라의 관심과 기대속에 조선소년단 제74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나 어린 소년단원들을 위한 뜻깊은 행사를 지켜보며 사람들은 1년전의 추억을 떠올린다.

2012년 6월 6일, 김일성경기장에 펼쳐진 눈물 없는 불수 없었던 그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행사를 성대히 열도록 하시고 몸소 축하연설까지 하신 김정은원수님, 앞날의 조선은 우리 소년단원들의 것이며 동부들의 모습에 조국의 레일이 비껴나고 하시던 그이의 연설을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나 어린 소년단대표들.

누구나 그때의 감정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에 고마움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행복한 소년단원들의 모습, 이는 곧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에서 부러움없이 마음껏 배우며 자라는 새 세대들의 모습이다.

전반적 12년제 무료의 무료

육제에서도 모든 어린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중학교과정을 마친 수많은 학생들이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대학, 전문학교등에 진학하여 강성국가건설의 인재로 자신들을 튼튼히 준비해나가고있는것이 공화국의 현실이다.

그러나 한지맥으로 잇닿은 남녘땅의 현실은 어떨까.

남조선에서는 자녀 1명을 키워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데 3억 1000만원이 든다고 한다. 이것은 3년전인 2010년에 비해 18% 늘어난 액수이다.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못가거나 도중에서 공부를 포기하고있다.

설사 대학에 입학하였다 해도 해마다 대폭 뛰어나오르는 등록금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못가거나 도중에서 공부를 포기하고있다.

엄청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많은 대학생들이 공부할 중도에서 그만두거나 식당이나 공사판, 유증업 등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가 자살까지 하고있다고 한다. 힘겹게 일을 하고 번 돈도 대학에 내야 할 등록금액수에 비하면 훨씬 적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등록금 때문에 학부형들의 허리가 굽는

다고 하여 《인골담》이라고 까지 하였는가.

초, 중학교의 학비도 날마다 늘어나 부모들이 자식들을 마음놓고 공부시킬수 없으며 학비때문에 부모들과 자식들이 자살하는 참극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있다.

돈이 없이는 배움의 꿈을 이룰수 없는 남조선사회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의 길, 락과 범죄의 길에 들어서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청소년 범죄건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새 세대들이 사회의 버림을 받고 앞날에 대한 희망마저 포기한채 범죄의 구렁텅이에 뛰어들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는 공포와 절망의 분위기가 더욱 만연되고있다.

송고한 후대사랑속에 배움의 꿈과 재능을 활짝 꽃피우며 나라의 역군으로 씩씩하게 자라고있는 공화국의 새 세대들과는 너무나 판이한 모습이 아닐수 없다.

후대들의 모습에 비친 두 현실은 과연 어느 사회에 진정으로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는가를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김춘경



즐거운 야영의 나날을 보내고있는 학생소년들 -만경대소년단야영소에서-

대를 이어 태양복을 누리는 조선의 학생소년들

공화국 방관기간 만경대학 학생소년군진을 찾은 외국 손님들은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사랑속에 과의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꾸려진 이곳에서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는 학생소년들의 광만이 넘친 모습을 목격하고 저저마다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분들의 송고한 후대관에 머리가 숙여진다. 학생소년들의 일과마다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있다.

궁전에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공연을 보면서 존경하는 김정은각하를 모시어 대를

외국인들의 반향

이 태양복을 누리는 조선의 학생소년들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느꼈다.

라오스녀성동맹대표단 단장 씨사이 트랫문손은 궁전에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을 관람하고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학생소년들의 공연이 특색있다.

이런 공연은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다.

출연자들은 높은 예술적기량으로 자기들의 행복한 모습을 노래와 춤에 담아 잘 보여주었다.

김일성주석께서 세워주시고 김정일각하께서 빛내여주시는 사회주의제도에서 마음껏 배우며 자라는 조선의 어린이들은 참으로 복받은 어린이들이다.

일조우호교포네트워킹대표단 장 사사기 미찌페로는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궁전은 조선에서 처음 보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어린이들은 나라의 미래이다.

그들을 어떻게 키우는데

따라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결정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학생소년들이 이런 궁전에서 무료로 재능을 꽃피운다는것은 꿈에도 생각할수 없다.

김정은각하의 사랑속에 조선의 어린이들은 지덕체를 겸비한 나라의 믿음직한 주인으로 튼튼히 준비하고 있다.

절세위인들의 송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후대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다시금 깊이 느낄수 있었다.

본사기자

미래를 키우는 요람

소(당시 3.8락아소)를 놓고 서도 가장 선진적인 어린이 교육요람제도의 혜택속에 무럭무럭 자라고있는 공화국의 어린이들의 행복상을 잘 알수 있다.

평양시 중구역 중성동에 위치한 평양《국제부녀절 50주년》락아소에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배두산위인들의 송고한 후대사랑이 뜨겁게 깃들여있다.

해방후 봉건적질곡에서 벗어난 여성들이 사회활동과 생산노동에 적극 참가할수 있도록 락아소를 많이 꾸리고 운영할데 대한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가르침을 받들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는 여러차례 이곳 락아소건설장에 나오시여 락아소를 꾸리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자정이 기술로써 새로 일떠설 락아소의 방배치도안도 그리시고 손수 한뼘한뼘 누벼가시며 어린이이물도 만드신 김정숙녀사께서는 락아소 어린이들을 위해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애용하시던 재봉기와 아이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다 삼향새라 포근한 주단도 보내주시었다.

백두산위인들의 따뜻한 품속에서 평양《국제부녀절 50주년》락아소는 새 조선의 어린이들을 미래의 역군으로 훌륭히 키우는 행복의 요람으로, 나라의 첫 본보기락아소로 태어날수 있었다.

하기에 1948년 4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공화국에 왔던 김주성선생은 이곳 락아소를 돌아보고 《이복은 어린이들의 왕궁이고 이상천궁이다. 장군님은덕으로 세워진 락아소에서 구김살없이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민족의 밝은 장래를 내다본다.》며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전쟁시기 파괴되었던 이 락아소는 전후에 나라의 첫 주락아소로 비롯하게 다시 일떠섰다. 이곳 락아소에서는 시간의 녀성들의 어린이들 특히 출장이 잦은 녀성기자, 녀성에술인, 녀성교원, 녀성의사 등의 어린이들을 맡아 훌륭히 키우고있다. 매주 월요일에 아이들을 맡고 토요일에 찾아가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몇주일 혹은 몇달씩 되는 장기출장 기간을 맡아 키우기도 한다.

만 2년 6개월부터 4살까지의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교양반과 준비반 그리고 잠자는방, 어린이식당, 아동병동, 종합놀이터 등 어린이교육요람에 필요한 온갖 조건들이

그쁘히 갖추어져있는 이곳 락아소에서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우리말공부와 섹세서공부, 놀이공부, 관찰공부를 하면서 사고력을 키우고 풍부한 정서와 예술적재능을 키워가고있다. 지난 기간 이곳 락아소에서는 부모들도 미처 몰랐던 어린이들의 재능의 싹을 적극 찾아 정성껏 어린이와 같은 코마그림그리기명수와 전도유망한 꼬마예술인들을 수 많이 키워왔다.

기자와 만난 이곳 락아소의 락아소장은 《어린이들을 락아소에서 선진적인 교육방식으로 키워낸 가정에서 보다 더 튼튼하게 키울수 있을뿐 아니라 어려서부터 좋은 품성을 불어줄수 있다.》고 말하였다.

오늘 유엔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어린이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있지만 질병과 분쟁, 가난과 굶주림, 에이즈의 전파 등 세계어린이문제는 시급히 해결을 기다리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진보적인들은 가장 선진적이고 인민적인 교육요람제도가 확고히 수립된 공화국의 현실에서 지구상 모든 어린이들의 생명과 권리, 행복과 건강을 진정으로 도모할수 있는 리상사회의 면모를 그려보려고있다.

본사기자 흥범식



평양국제 축구 학교 개교모임 진행

풍치수려한 룡라도에 일떠선 평양국제 축구 학교가 개교하였다.

새로 건설된 학교는 1만여㎡의 면적에 현대적인 교사와 운동장, 기숙사, 문화후생시설을 그쁘히 갖춘 축구선수후비양성지이다.

축구에 재능있는 학생소년들이 마음껏 배울수 있는 모든 조건이 훌륭히 마련되어있는 학교에서는 앞으로 의국의 우수한 축구전문가들을 초청하고 류학을 지방하는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도 교육하게 된다.

평양국제 축구 학교 개교모임이 5월 31일에 진행되었다.

모임에서는 리종무체육사의 개교사에 이어 학생 김룡익, 교원 박경봉, 학부형 리금실이 토론하였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김정일에국주의를 구현하여 학교를 잘 꾸리며 맡겨진 혁명임무수행에 헌신함으로써 금메달로 선군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참가자들은 학교에 대한 해설을 듣고 수업참관을 하였다.

본사기자



평양국제 축구 학교 학생들

제철으로 흥하는 보람

* 증산군식료공장에서 *

평양남도 증산군에 가면 군내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식료공장이 있다.

이곳 식료공장에서는 된장, 간장, 기름을 비롯한 기초식품을 수없이 생산하여 읍지구를 비롯한 군안의 주민들에게 매일 떨지 않고 공급하고있는데 그렇게 하니 주민들 모두가 좋아하고 있다. 군안의 락아소와 유치원 어린이들, 소학교학생들치고 이 공장에서 만든 콩유의 덕을 입지 않는 아이들이 없다.

공장에서 생산되어나오는 사랑, 파자를 비롯한 당과류들도 하나같이 빛깔이 곱고 향기로우면서도 맛이 좋아 그 기쁨을 배우며 도처에서 공장에 찾아오고있다고 한다.

현대적인 기름생산공정과 된장, 간장, 당과류생산공정을 그쁘히 갖추어놓고 해마다 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하고있는 이 공장의 성과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공장의 형편은 오늘과 같지 못했다.

공장이 생긴지 수십년 세월이 흐르는 파정에 생산설비들도 낡았고 원료보장조건도 씨런치 못했다.

당시 공장에 새로 배치되었던 리정렬지배인은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켜 공장안팎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할 할 품이 큰 목표를 내세우고 대담하게 달라붙었다.

리정렬지배인을 비롯한 공장종업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원로기지를 확장하는데 달라붙었다. 공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녀성종업원들로 생산은 생산대로 밀고나가면서 원료기지조성도 하지니 예로가 한몫이 아니었지만 자기 군주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일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결사적으로 일을 해나갔다.

하여 1년도 못되는 사이에 50여 정보에 달하는 튼튼한 원로기지를 꾸리고 생산정상화에 필요한 원자재들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할수 있었다.

한편 공장에서는 낡고 뒤떨어진 설비와 생산공정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데도 큰

힘을 넣었다.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생산능률이 낮은 설비들과 손로동이 많은 생산공정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단계별목표를 높이 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하여 짧은 기간에 생산공정의 과학화,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오늘 콩유유기계, 사랑알, 콩사랑만드는 기계, 물엿생산공정, 기름제정공정 등이 생산정상화에서 큰 은을 내고있는데도 집체적지혜와 창발성을 발휘한 이 공장 기술자, 노동자들의 노력이 깃들여있다.

기자와 만난 공장의 리정렬지배인은 《자력갱생은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을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빈터우에 자립적인 경영기지를 일떠세운 전세대들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사업을 이악하고 박력있게 밀고나간다면 오늘의 조건에서도 얼마든지 인민생활향상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다.》고 확신에 넘쳐 말하였다.

본사기자 박원평

오늘 공화국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도와주고 위해 주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얼마전에도 수도건설위원회 산하단위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함께 일하는 동지를 위해 자기의 피부를 아낌없이 바치는 미풍을 발휘하였다.

지난 4월 어느 한 공사에 참가하여 일하던 운전사 김영삼은 뜻밖에 화상을 입고 평양시제2인민병원으로 긴급후송되게 되었다.

5월초 환자에 대한 1차 피부이식수술이 진행되었다. 손무런, 류정남을 비롯한 수십명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앞을 다투어 병원으로 달려가 그를 위해 서슴없이 자기의 피부를 바쳤다.

2차피부이식수술에는 군 100명에 달하는 돌격대원들이 또다시 병원으로 달려왔고 3차피부이식수술을 할 때에는 2차때보다 더 많은 돌격대원들이 환자를 위해 피부이식수술에 참가하였다.

평양남도 평원군인민병원에서도 자기들의 피를 바쳐한 어린이의 생명을 소생시킨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졌다.

본사기자 리성일

요즘은 계절적으로 보나, 날씨로 보나 온천, 약수를 리용한 룡양치료에 적기여서 각지의 룡양소들마다 사람들이 붐비고있다.

병없이 오래 살려는 인간의 오랜 욕망은 세월의 흐름, 사회발전과 더불어 더욱 커짐으로써 룡양소를 찾는 사람들이 해마다 더 늘어나고있다.

지금 공화국에는 광천자원이 풍부하고 경치가 좋은 곳들마다에 훌륭한 치료시설을 갖춘 룡양소들이 백수십개나 세워져있다.

여기에서 각종 의 룡상해를 받고 치료받는 사람은 해마다 수만명에 달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같은 돈 많고 권세있는자들의 유혹지대로, 돈벌이수단으로 리용되었을 장소마다에 자연치료인자를 리용한 치료기관들이 세워져 평범한 근로자들이 마음껏 룡양소를 받고 있는것은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공화국의 인민적시책이 안아온 자랑찬 현실이다.

공화국에서 온천이나 약수, 치료용감탕 등 자연치료인자들이 있는 지대에 룡양소들이 대대적으로 세워지게 된것은 전후부러었다.

어느날 해당 부문의 일군으로부터 전후 인민들에 대한 의 룡보사문제에 대하여 룡해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온천과 약수를 가지고 병을 예방치료하는것은 전방적부상치료제 성파적으로 실시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온천

선택해준다.

이에 맞게 룡양소들에서는 환자의 질병과 일반상태 그리고 광천에 대한 반응상태에 따라 치료계획을 개별화하고 그에 따르는 복합치료를 널리 조직한다.

최근에는 온천지대에 민박소들이 새로 일떠서 근로자들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고있다. 집안으로 흘러드는 온천물에서 아무때나 마실수 있고 전신욕을 할수 있어 룡양생들의 건강회복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지난해 강원도에 자리잡고있는 시중호료양소에서 룡양 생활을 보낸 후 병이 완쾌된 한 로인은 치료도 마음껏 받을수 있고 등산과 해수욕은 물론 낚시질까지도 할수 있어 정말 좋았다고, 그런 훌륭한 명당자리에 인민들을 위한 룡양소를 건설해준 나라의 은덕에 고마움을 금할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이것은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던 한 로인의 심정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언제나 제일 좋은것은 인민들에게 돌려주는 고마운 사회주의시책속에 평범한 근로자들이 사소한 불편도 없이 치료를 받고있다.

본사기자

무병장수와 룡양

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손길아래 사람들의 병치료와 건강증진에 널리 리용되게 되었으며 이 땅우에는 근로하는 인민들에게 무병장수의 락을 안겨주는 룡양소들이 무수히 세워지게 되었다.

현재 공화국에는 해당 룡양소의 주되는 특성에 따라 온천료양소, 약수료양소, 감탕료양소, 기후료양소가 있으며 여기에서는 자연치료인자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물리치료, 체육치료, 식사료법 등 복합료법들로 룡양생들을 치료하고 있다.

해마다 국가적인 사회보통제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각지 룡양소에서 30여일간에 걸치는 의 룡보사를 무상으로 받고있다.

해당 병원의 전문가, 의사들은 진단과 협의를 통하여 룡양치료대상환자들을 선별하며 병치료와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는 룡양소를

본사기자



- 김정은 룡양소에서 -



대동강에 펼쳐진 춤추는 분수의 황홀경

세계문화유산 - 강서세무덤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회화유산인 고구려무덤벽화는 국내뿐 아니라 일찌기 동아시아의 남쪽과 북쪽으로 널리 확대되어 문화적영향을 주었으며 동화문화의 정화로 인류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강서세무덤의 벽화는 고구려무덤벽화의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다. 세계의 무덤으로 메를 이룬 강서세무덤은 6세기말~7세기초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벽화가 그려져있는 곳은 큰무덤과 중무덤이다.



큰무덤의 현무

이 무덤들에 그려진 사신도는 그 형상의 생동성과 진실성으로 하여 중세 우리나라 회화사는 물론 세계회화사에서도 손꼽히는 걸작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당시 고구려의 봉건통치배들은 종래 관습대로 무덤안에 호화로운 생활장면이나 사신도 등 인물풍속도를 그려놓는것만으로는 안심치 않아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안녕과 안식》을 바라면서 사신도를 그려넣었다.

강서세무덤의 사신도들 가운데서 특히 큰무덤의 청룡과 현무, 중무덤의 백호와 주작은 고구려사람들의 기발한 구상과 풍부한 환상력, 동물에 대한 예리한 관찰력을 잘 보여주고있다.

이 잘 나타나고있다.

강서세무덤의 중무덤 남쪽벽에 형성한 주작 역시 잘된 벽화이다. 이 주작은 여의주를 물고 깃을 힘차게 벌려 활개를 치며 방금 날아오를듯 한 모습으로 형상되어 있다.

이처럼 강서세무덤에 그려진 사신도는 비록 상상의 동물들이기는 하나 실제한 동물의 형태와 특성에 대한 깊은 파악에 토대하여 풍부한 예술적환상을 창조한것으로서 고구려회화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는 민족의 귀중한 유산이다.

유네스코는 우리 나라의 강서세무덤을 비롯한 16기의 고구려무덤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였다. 오늘 강서세무덤은 국보적유적으로 잘 보존관리되고있으며 거례에게 민족적경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다.

하나의 혈통을 이어온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백의민족으로 불리워왔다.

백의민족이라는 말은 흰 옷을 즐겨 입었던 우리 민족에 대한 호칭이다. 우리 민족이 흰색의 바지와 치마, 저고리를 입은것은 단군을 시조로 한 민족의 단일성과 관련된다.

우리 조상들은 흰색을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색으로, 단군을 숭상하는 색으로 여겼기때문에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에는 언제나 흰옷을 입고 흰쌀밥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하나의 관습으로 굳어져 전통화되었다.

우리 민족이 흰옷을 입은 것은 또한 깨끗하고 순결한 것을 좋아하는 정서와도 관련된다.

우리 선조들은 일년 사계절 항상 깨끗한 흰옷을 즐겨 입었다. 특히 무명이 옷감으로 널리 이용되면서 흰옷을 해입는 풍습이 더욱 굳어졌다.

옛 력사책에는 부여에서 《흰옷을 숭상한다.》고 써여있으며 7세기에 편찬된 《수서》에도 조선민족이 흰옷을 좋아했다고 기록되어있다.

3.1인민봉기때에는 온 나라 인민이 흰옷을 입고 반일시위에 떨쳐나섬으로써 백의민족의 단결력과 항거의 정신을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꽃과 생활의 정서

만화방초라는 말이 있듯이 요즘 거리와 마을, 일터와 가정 그 어디에나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이 활짝 피어나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아름답고 고상한것의 상징인 꽃은 사람들의 정서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꽃을 사랑하여왔다. 우리 민족에게는 꽃과 관련된 전설이 많다. 아이들의 이름도 꽃분이, 국화, 진주 등 꽃과 관련시켜 지기도 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집들안에 꽃밭을 조성하고 계절에 따라 많은 종류의 갖가지 꽃을 심고 정성껏 가꾸어왔다.

꽃을 남달리 사랑한 우리 선조들은 꽃을 형상한 미술작품, 문예작품들도 많이 창작하였다. 꽃을 형상한 청자기들과 백자기 등 공예품들도 많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고려시기의 청자꽃병들에는 국화, 매화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꽃무늬들이 아름답게 부각되어있다.

꽃을 사랑해온 이러한 풍습은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정서적감정의 반영으로서 조

성이기도 하다. 창조와 변혁의 하루하루, 한순간한순간을 위훈과 혁신으로 수놓아가는 사람들이 일터와 마을, 교정과 집에서 사시절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가꾸어간다.

작업의 휴식함에도, 과학탐구의 열띤 순간에도, 하루일을 마친 저녁에도 꽃을 보고 가꾸며 보다 좋아질 앞날에 대한 심신을 가다듬고 미래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불태우는 사람들의 생활기풍은 강성국가를 앞당겨주는 또 하나의 정진력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효능높은 3세대항암제 개발

최근 공화국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효능높은 3세대항암제인 옥살리플라틴주사약을 개발하였다.

지난 수십년간 세계적으로 수많은 항암약들이 개발되어 임상치료에 이용되고 있지만 효능높고 안전한것으로 평가되고있는것은 백금계열항암제 특히 옥살리플라틴이다.

그것은 종물속수물에서 다른 항암약들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면서도 부작용과 독성이 거의 없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옥살리플라틴은 3세대항암제로 세계 여러 나라의 약전에 오르게 되었다. 현재 옥살리플라틴은 발

진된 일부 나라들에서만 독점적으로 생산되고있다. 암치료분야에서 3세대항암제인 옥살리플라틴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른 여러가지 항암약들을 함께 쓰는것이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새 기술개발집단의 김성욱, 조현욱, 림창호를 비롯한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3세대항암제를 연구개발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연구를 거듭하여 모든 지표에서 세계적수준에 도달한 옥살리플라틴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에

본사기자

《강정, 빈사과, 대추, 복숭아라. (가난한 선비 강정의 정자 지나다가 크게 취하여 소나무아래 었드렸도다!)》

《첫구의 (강정빈사과)는 강 강자, 정자 정자, 가난 빈자, 선비 사자, 지날과자요, 돌재구인 (대추복숭아)는 큰 대자, 취할 취 (방언 추)자, 었드림 복자, 술 송 (방언 송)자, 아래 하 (방언 아)자로 되였군.》

선비들을 둘러보던 의암은 섬평종재 자고있는 취객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이 선비야말로 놀라운 시재로, 상상밖의 그런 재기가 옛 김립(김병연)선생으로 끝나버리는줄 알았더니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있는 즉 이 또한 분명고 단군겨레의 자랑이로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요즘 시원한 맥주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맥주는 아무 사람들에게나 다 좋은것이 아니다.

* 만성위장염으로 앓고있는 사람들은 맥주를 피하여야 한다.

맥주는 위의 점막을 자극하기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면 옷가게 붓고 가슴이 타는듯 아파나고 식욕이 떨어지게 된다.

* 산모들이 맥주를 마시면 젖이 건다.

맥주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젖분비를 억제해주기때문이다.

본사기자

조선옷차림에 맞는 몸가짐

조선옷은 옷의 선이 아름다울뿐 아니라 고상한 옷이기때문에 입는 사람의 자세와 몸가짐이 옷에 어울려야 한다.

① 조선옷차림에 맞는 몸가짐을 하려면 우선 자세를 바로하여야 한다.

서는 자세를 바로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선옷차림에서 바라는 자세는 두발을 꼭 붙일수도 있지만 약간 벌리고 몸무게를 양쪽다리에 나누어 서는것이 편한 자세이다.

이때에 가슴은 반듯하게 펴고 배는 자연스럽게 들어보낸다. 머리는 다소곳이 숙이고 눈길은 약간 펴고 자연스럽게 서있다. 손을 모아엮 수도 있지만 한손으로 고름을 쥐고 서있는 자세는 부드러우면서도 우아한 녀성적인 멋을 나

타낸다.

앉는 자세를 바로하는 것도 중요하다. 조선옷차림을 하도 의자에 앉을 때에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등받이에 의지하면서 랑은 무릎앞에 놓거나 가볍게 마주잡으며 다리는 랑무릎이 가지런히 놓이도록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온돌방에 앉을 때에는 두다리를 가지런히 놓혀서 앉거나 한쪽다리 무릎을 세워서 앉을수도 있다.

② 다음으로 걸음걸이를 잘하여야 한다.

조선옷차림에 어울리는 걸음새는 시원스러우면서도 사뿐한 걸음걸이라고 할수 있다. 이때에는 보폭을 너무 크게 떼거나 무릎을 너무 들지 말고 60cm정도의 안팎에서 발을 직선으로 짚으면서 약간 속도감이 있게 걸어야 한다.

본사기자

자기를 찾은 사람 (5)

글 량 홍 일, 그림 김 윤 일

그는 문이 열려진 아들의 방에 눈길을 주었다. 책상우에는 여러가지 책들이 널려 있었다.

원, 언제면 제 물건을 제대로 건사하는 버릇을 가지겠는지...

지근우는 머리속에 안개처럼 떠도는 불길한 생각을 털어버리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방에 들어갔다. 책상우에 놓인 책들을 차곡차곡 한구석에 쌓아놓는데 문득 한장의 쪽지편지가 떨어졌다. 아마 어느 책갈피속에 끼여져있었던 것 같았다. 호기심에 그는 그걸 퍼들었다. 은경의 편지였다.

《성수씨, 전 집에 내려갔다 와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저의 아버지를 비롯한 제 고향의 소고기생산업자들은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으로 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있답니다. 민생을 위한다고 하면서 당국이 끌어들이고 소고기 가격이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생활을 위협할줄은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도 지금 서울

해서인지 그 심통을 알수가 없다. 더우기 기본나쁜것은 《단골손님》들까지 민음보다 의심을 앞세우는것이다.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게 소고기를 팔아보기는 처음이다. 국내산 소고기에 비해 가격은 절반이나 높지만 선풍 사려고 하지 않으니 정말 이상한 일이다. 새 물건을 대할 때면 의례히 상품의 가치와 품질에 대해 관심을 두는것이지만 이렇게까지 자기의 신용이 저울질당해버리는 처음이다. 하긴 요즘

한 전에 없이 심판해졌다. 어제저녁 집에서 있었던 일이 되살아났다. 쉽게 믿고 넘어갈 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진중일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폭 속에 땅짜만한 돌이라도 들어앉아있는 것만 같았다. 제발 그 불씨가 더 살아나 아들에게 더이상 화가 미치지 않기를 빌고 빌었다.

한낮이 될무렵 갑자기 난데없이 나타난 수십명의 남녀학생들이 소고기판매소들을 에워쌌다. 그들은

《미국산 소고기판매를 중지하라!》, 《우리는 광우병의 희생물이 되고싶지 않다!》, 《미국산 소고기는 독약이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반대하는 초보시위와 민심의 여론이 높아져 더한것 같았다. 일이 이쯤 되고보니 마음 또

화분에 선인장을 많이 키우면

선인장은 공기속의 해로운 물질을 흡수하는 힘이 다른 화초들보다 갑절 더 세다. 화분이면 선인장은 공기속에 산소를 내보낸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선인장을 많이 키우면 환경을 깨끗하게 할수 있을뿐 아니라 만성호흡기질병, 뇌혈전, 고혈압환자들에게 효과가 매우 좋다.

본사기자